

한국인의 연령별 외식 행동이 편의식 소비 유형에 미치는 영향

안경미*, 문수재, 이양자, 김정현¹⁾, 이영미²⁾.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¹⁾배재대학교 가정교육학과, ²⁾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현대 사회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과 외국 문화의 수용은 식생활 문화에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게 되었다. 1996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전체 소비 지출액 중 외식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외식이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변화와 경제 수준의 향상은 과학 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소비 식품의 생산을 다양화하였고, 식품 생산의 다양화는 편의 식품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식생활의 가치 개념에서 편의식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외식 이용의 증대가 편의식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리란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 편의식의 소비 유형에 미치는 외식 행동의 영향에 관하여 조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편의식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중년층의 성인 남녀 등 총 6,03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연령별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에서 편의식에 관한 인지도 및 태도와 함께 외식에 대한 가치와 실제의 외식 행동 유형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편의식의 이용 경험 및 이용 빈도를 조사하여 외식과의 상관성을 파악한 후 편의식 개발 방향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식생활의 간편성 측면에서 그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외식의 경우, 연령별로는 조사대상자 중 20대가 한 달 평균 12.9 ± 12.4 회로 가장 외식을 자주하고 있었으며($p < .001$), 성별로는 남자가 한달 평균 6.1 ± 8.5 회로 외식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총수입의 경우는 한달 수입이 가장 적은 집단(100만원 이하)에서 외식 횟수(3.8 ± 5.8 회)도 가장 낮았으며,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외식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가용 용돈에 있어서도 모두 한 달 평균 용돈이 많은 집단에서 외식의 횟수가 유의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p < .001$). 학생과 성인으로 나누어 외식의 이유를 살펴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주로 편리성(20.5%)과 관계 개선(20.3%)을 목적으로 외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연령별로 살펴볼 때 연령이 많아질수록 '관계 개선'에, 연령이 낮아질수록 '편리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p < .001$). 중년층의 경우는 삶에서의 '변화 추구'에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관계 개선'(13.8%) '편리성'(10.7%)의 순으로 외식을 이용하고 있었다($p < .001$).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40대의 70.4%가 '변화 추구'를 이유로 들고 있어 다른 연령대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 < .001$). 4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편리성'이 외식을 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차지함으로써 성인의 경우도 '편리성'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78.1%는 식생활에서 편의식을 주로

‘먹기에 간편한 것’으로, 74.6%는 ‘단시간에 준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편의식은 식생활 관리 측면에서 ‘간편성’이 큰 가치 형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편의식의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자의 88.9%가 편의식을 실제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자주 이용하는 비율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p < .001$). 총수입은 200만원-500만원 정도인 가정에서($p < .05$), 학생층은 가용 용돈이 다소 많은 집단에서 그 이용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p < .001$). 편의식에 대한 평가를 ‘먹기에 간편한 것’, ‘단시간에 준비 가능한 것’, ‘외식의 일종’이라고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집단에서 편의식을 자주 이용하고 있음도 나타났다($p < .001$). 또한 편의식의 이용과 외식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외식의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편의식의 이용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